

고은 불교 대하소설

또 하나의 임춘인가

아홉사람에 한 사람이 더하였다. 이제 무욕도는 오래동안 사람없는 세월을 오직 파도소리에 에워싸인 채 보내다가 한 사람의 선승을 받아들인 이래 열 사람이 사는 섬으로 바뀌었다.

우연히 이 섬에 건너와 여기저기 살핀 끝에 샘물 두어군데를 발견하고 여기에서 고독한 수행을 일삼았던 인담으로부터 이번에 새로 온 선비 김종무까지 아우르는 때에 이르렀다. 그것은 갑자기 고리채(高利債)가 붙어난 어이없는 사정 과도 같았다. 아니 그것은 한 마리의 돼지가 여러마리의 돼지새끼를 낳아 갑자기 돼지우리 안이 그들먹한 것 과도 같았다.

이런 비유가 조잡한 것이라면 저 라마 승의 화공(畫工)이 정교하게 그려낸 금강계(金剛界) 태장계(胎藏界)의 양부만 다라(兩部曼荼羅) 혹은 잡(雜) 만다라의 세계 한 부분에 오순도순 제존(諸尊)만이 모여있는 그 신성스러운 평화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니 이같은 비유 따위가 도대체 헛된 바 있다. 그저 하나였다가 그 하나의 우연이 아홉이나 열의 필연으로 바뀐 것이었다.

서로 섬에 올라선 선비에 대해서는 인담이 나갔다. 웬일로 우너는 뒤로 물러선 채 인담의 거동에 그 낯선 남자를 맡겨버린 것이다.

인담이 젊은 선비를 정중하게 맞았다. 정중한 바가 더 손님에게 군림하는 힘이 되고 있었다.

인담의 첫마디에 뼈가 들어있었다. "공(公)께서는 유건(劉健)을 쓰시고 불가(佛家)에 귀의할 뜻인가요?"

"이미 소생은 주자(朱子)를 떠났습니다. 유건은 썼으되 이 바다에 벗어던질

"어디서 이 시를 읽으셨나요?" 하고 인담이 물었다.

"읽다니요? 그저 입에서 나오는대로 소리를 내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이 지었다던 말이요?"

"소생이 지은 것인지 이 섬이 지은 것인지 모르나... 이 한 구절이 분명코 기왕의 것이 아님에는 틀림없습니다"



수미산

20



그림 · 조향숙

웬놈이 그가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임춘의 시를 제것이라 읊어 대는가 "지금 네가 임춘의 후신을 만나고 있느니라" 꿈을 꾸는 인담의 가슴팍에 땀이...

일입니다"라고 그 자신의 결의를 밝혔다.

그의 대답은 어느덧 한 구절의 시를 읊는 것으로 이어졌다.

오래도록 유락(流落)하며 서울을 떠나 초(楚)나라 관(冠)을 쓰고 남방음악(南音)을 썼나니

(久因流落去長安 空學南音載楚冠)

이 구절을 듣고 인담은 깜짝 놀랐다. 이는 분명코 고려 무신란 이후 임춘이 이마수(李馬守)와 더불어 그의 맹우(盟友) 이담지(李湛之)의 집에서 지은 즉흥 칠언시(七言詩) 첫 대목이 아닐 수 없었다.

"틀림없다" 인담은 더욱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선비를 그대로 새로 지은 갈대 암자 토방 광상에 앉혀두고 그의 처소를 갔다. 가서 「서하문집」을 뒤적였다. 그의 밝은 기억 그대로 선비가 읊는 것은 임춘의 것이었다.

인담이 나와서 선비 앞에 마차 친국(親鞠)이라도 하는 왕처럼 서 있었다. "그것은 정녕 서하선생의 소작(所作)이거늘?"

"?"

"그렇거늘 어찌 그것을 공이 지은 것으로 삼는다는 말이요?"

"?"

"유림(儒林)에서는 그런 거짓이 통할지 모르나 이 공문(空門)에서는 한오리 거짓도 통할 수 없소. 아니 이곳에서는 참도 참이 아닌 것을"

"해라기 어려운 뜻이라...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 밤이나 정해드릴 터이니 우선 이 섬이 살 곳인지 떠날 곳인지 잘 생각해 보시오"

인담의 말은 쌀쌀하였다. 하필이면 웬놈이 그가 마음 속에 섬기고 있는 임춘의 시를 제 것이라 읊어대는가 하고 그는 내심 패색하게 여기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런 한편 그런 임춘의 시를 외우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 저이기 반갑지 않은 바도 아니었다.

그렇지나 고려시대의 불우한 시인 임춘은 몇백년이 지난 오늘에도 결코 파문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밤을 안내하며 한번 더 그의 시의 사연을 물었다.

"아까 그 시 어디서 읽은 것이요?"

선비의 대답은 전혀 그 질문은 아귀가 맞지 않았다.

"그날 흘러나온 것입니까... 어디서 읽었더니요... 하기가 당음(唐音) 송부(宋賦)를 다 읽었으니 비슷한 것으로 지어

막으로 동행하였다. 거기는 송바람소리가 위장이 나쁜 사람이 빈 위장안을 비로 쓰는 것 같은 아픔으로 들리고 있었다. 높은 곳이라 파도소리가 사방에서 더 크게 물려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인담이 말하였다.

"다른 것은 몰지 않겠소. 단 한 가지가... 지금 공은 관가에서 쫓기는 신분은 아닙니까?"

선비 종무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어디 가도 땃땃합니다. 다

무욕도의 열사람이 7일동안 샘물만 하루 반되가량 마시면서 좌선정진에 들어갔다

만 벼슬을 할 수 없는 처지일 뿐입니다"

인담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여기서 화두(話頭)나 하나 잡고 살아갑시다"

"이미 소생은 무욕도의 제자입니다"

"좋습니다. 이로부터 내려가 이 수행처의 보살을 만나보시오"

하고 그를 데리고 내려와 우너에게 새삼 소개하는 것이었다. 우너가 그를 보자 함박웃음으로 반기는 것이었다.

"이제 10인 결사(結社)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깊은 지혜의 용궁(龍宮)까지 다 떠오르게

"..."

"날 따라와!"

만화는 자신만만하게 앞장 서고 남쳐사는 꼴이 죽어 뒤를 따랐다. 그러다가 남쳐사가 틀 한 덩어리를 집어 만화의 뒷통수를 치는 할나, 만화가 휙 뒤돌아서서 남쳐사의 뺨귀리를 차 넣었다.

"이 작자가 비겁하기는... 뒤에서 사람을 쳐 죽이려고... 내가 15년동안 너를 데리고 살아온 세월이 헛 것이었다"

만화는 남쳐사를 끌고 가서 새로 지은 암자 뒤켠으로 갔다. 거기에 도끼가 있었다.

"네 놈의 손으로 다시는 노를 저을 수 없을 것이야" 하고 외친 뒤 바로 그 도끼로 남쳐사의 바른 팔뚝을 찍어 버렸다. 피가 치솟았다.

"아앗!"

그때 저쪽 큰 암자 안에서 좌선을 하고 있던 인담과 우너 그리고 수월들이 나왔다. 수월이 제발리 남쳐사의 잘린 팔뚝을 천으로 묶고 흠을 물에 개어 붙이고 돌려왔다. 남쳐사가 영언이를 땅 위에 띄우다가 넋을 놓은 채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다.

우너가 단호하게 말하였다.

"저기 잘린 손목을 어서 땅에 묻으시오!"

수월이 그것을 흠을 파고 깊이 묻었다.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을 첫날로 삼읍시다"

남쳐사까지 방안에 기대어 앉힌 그 7일 정진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런데 남쳐사에게는 흠을 붙인 것 밖에는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았는데 곧 지혈(止血)이 되었고 심한 아픔도 조금씩 줄어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몸이 우람한 만화나 무전 파환들은 사흘이 지난 단식으로 무척 쇠약해졌다. 며칠을 굶어도 어느 때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은 우너와 합두 두 여자였고 그 다음은 인담이었다.

새로 온 선비 출신의 불어행자도 눈에 해골 기운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기껏해야 7일동안의 빈 속인데 이 지경이었다.

佛敎聖地巡禮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태국 5일 ₩ 595,000

서울-방콕(2박)-아유타야, 방파인, 수상시장, 새벽사원, 왕궁, 에머랄드 사원, 무암보란, 황금불 사원-파타야(2박)-방콕-서울

출발일: 3월 / 23, 28, 30 4월 / 4, 6, 11, 13, 18, 20, 26, 27

대만 5일 ₩ 595,000	서울-대륙-일월담(1박)-고공-불광사(1박)-화련(1박)-대륙(1박)-서울	3월 / 22, 29 4월 / 5, 12, 19, 26
스리랑카 6일 ₩ 1,070,000	서울-콜롬보(1박)-아누라푸라-하바라나(2박)-폴론나루와-덤프라-켄디(1박)-콜롬보(1박)-서울	3월 / 24, 31 4월 / 7, 14, 21, 28
미얀마-태국 8일 ₩ 1,400,000	서울-방콕-양곤(1박)-과갈(1박)-만달레이(1박)-양곤(1박)-폐구-양곤(1박)-방콕(2박)-서울	3월 / 24, 31 4월 / 7, 14, 21, 28

新春海外旅行

-최고의 여정·최상의 서비스·최대의 기쁨-

방콕·파타야 5일 ₩ 635,000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3월 / 22, 25, 26, 29 4월 / 1, 2, 5, 8, 9, 12, 15, 16, 19, 22, 23, 26, 29, 30
방콕·푸켓 5일 ₩ 649,000	서울-방콕(1박)-푸켓(3박)-서울	3월 / 25 4월 / 5, 12, 19, 26
동남아 3국 5일 ₩ 590,000	서울-쿠알라룸푸르(1박)-싱가포르(2박)-마닐라(관광)-기내(1박)	3월 / 22, 29 4월 / 5, 12, 19, 26
방콕·푸켓·싱가포르 6일 ₩ 795,000	서울-방콕(1박)-푸켓(2박)-싱가포르(2박)-서울	3월 / 28 4월 / 4, 11, 18, 25
하와이 5일 ₩ 649,000(일금) ₩ 699,000(특금)	서울-호놀룰루(3박)-기내(1박)-서울	3월 / 22, 23, 25, 29, 30 4월 / 1, 2, 5, 6, 8, 9, 12, 13, 15, 16, 19, 20, 22, 23, 26, 27, 29, 30
동경·하코네 4일 ₩ 945,000	서울-동경(2박)-하코네(1박)-서울	3월 / 23, 30 4월 / 6, 13, 20, 27
유럽 5개국 10일 ₩ 1,790,000	서울-영국-독일-스위스-이태리-프랑스-서울	3월 / 23, 30 4월 / 4, 6, 11, 13, 18, 20, 25, 27
사이판 4일 ₩ 549,000	서울-사이판(3박)-서울	3월 / 23, 26, 30 4월 / 2, 6, 9, 13, 16, 20, 23, 27, 30
괌 4일 ₩ 549,000	서울-괌(3박)-서울	3월 / 23, 26, 30 4월 / 2, 5, 9, 12, 16, 19, 23, 26, 30
호주·뉴질랜드 8일 ₩ 1,270,000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로토루아(2박)-오克蘭드(1박)-시드니(2박)-서울	3월 / 23 4월 / 1, 2, 4, 6, 8, 9, 11, 15, 16, 18, 20, 22, 23, 25, 27, 29, 30

新婚旅行

“새로운 출발, 허니문 전담팀이 권해 드리는 일곱색깔 무지개 여정”

방콕·파타야 5일 ₩ 635,000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푸켓 5일 ₩ 740,000	서울-방콕(1박)-푸켓(2박)-방콕(1박)-서울
대만(화련) 4일 ₩ 520,000	서울-대만(화련) 3박-서울
괌 4일 ₩ 670,000	서울-괌(3박, 4박)-서울
사이판 4일 ₩ 670,000	서울-사이판(3박, 4박)-서울
하와이 5일 ₩ 649,000(일금) ₩ 699,000(특금)	서울-하와이(3박)-기내(1박)-서울
호주 5일 ₩ 860,000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 2박)-시드니(2박)-서울